

李塗의 《文章精義》 初探

-文評을 중심으로-

李 聖 浩*

〈 目 次 〉

- | | |
|-----------------|--------------------|
| I. 緒論 | 2) 모방해서는 안된다 |
| II. 李塗와 《文章精義》 | 3) 達意와 修辭의 적절한 조화 |
| 1) 李塗 | 4) 마음을 비울 것 |
| 2) 《文章精義》 | 5) 간결하게 할 것 |
| III. 李塗의 文論 | 6) 쓸 대상에 맞게 지어야 함. |
| 1) 문장의 근본은 六經이다 | 4. 結論 <參考文獻> |

I. 緒論

南宋시대로 접어들면 散文방면에서 散文選集을 編刊하는 풍조가 성행하고¹⁾ 또 다종의 文論專門著書²⁾가 출현한다. 그 중의 하나가 李塗 撰의 《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남송 후기 만을 치더라도 대표적인 것으로 樓昉의 《迂齋標注崇古文訣》, 陳德秀의 《文章正宗》·《續文章正宗》, 王鑑震의 《古文集成》, 湯漢의 《妙絕古今》, 謝昉得의 《文章軌範》 등을 들 수 있다.

2) 陳騭의 《文則》, 方願孫의 《黼黻文章百段錦》 등이 있다.

文章精義》이다. <문장정의>를 四庫全書에서 찾아보면 詩文評類에 속해 있다. 그러나 거개가 文評에 관한 것이며 詩評은 적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그 구성은 <論語>와 유사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량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그 간결한 논평 중 후대로 盛傳된 評語들이 적지 않은 바, 규모에 비해 그 영향은 크다 하겠다. 다만 이제껏 여기에 대해 연구된 바는 아직 없는 것 같다.³⁾ 따라서 본고에서는 李塗와 <문장정의>, 그의 文論의 체계적 정리와 그것의 의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李塗와 <文章精義>

1) 李塗

<문장정의>의 著者 李塗에 대해 四庫全書本 <文章精義·提要>에서는

신 등이 삼가 살펴보건데, <문장정의>는 세상에 傳本이 없고 諸家の 書目에도 또한 모두 실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락대전>에만 그것이 있사운데, 단지 이기경 撰이라고만 題되어 있을 뿐, 시대가 저록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기경이 어디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초희의 經籍志를 살펴봄에 '李塗文章精義二卷'이 있는데 書名 및 李氏라는 성이 모두 이 본과 서로 합치된 즉, 著脚은 아마도 李塗의 字인 듯 싶습니다.(臣等謹案, 文章精義, 世無傳本, 諸家書目, 亦皆不載. 惟永樂大典有之, 但題曰李著脚撰, 而不著時代, 亦不知著脚爲何許人. 考焦竑經籍志有李塗文章精義二卷, 書名及李姓皆如此本相合, 則著脚或塗之字歟.)

라고 하여, 그 생애와 출신지가 미상이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著脚이 李塗의 字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제자인 于欽⁴⁾의 <문장정의>의 跋尾를 보면 李塗에 대해

3) 程千帆(外一人) 著의 <兩宋文學史> pp497-8에 간략한 소개가 있다.

선생은 姓이 李氏, 名은 塗, 字는 耆卿이다. 性學은 당대의 이름높은 분이 선생님의 서재에 붙여 준 이름이다. 朱子 문인의 문인이다. 뒤에 벼슬하여 國子助敎에 이르렀으며 임관 중에 돌아가셨다. (先生姓 李名塗, 字耆卿; 性學, 當代名公鉅卿扁其齋居之號□□□□朱子門人之門後仕至國子助敎, 卒於官.)

라고 서술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李塗는 字는 耆卿, 號는 性學, 朱憲의 再傳弟子이고, 생전엔 당시의 名公鉅卿과 교분이 꽤 깊었으며,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듯 하다. 벼슬은 國子助敎에 이르렀다.

2) 《文章精義》

이런 그가 于欽에게 학문을 전수해주는 틈틈이 문장에 대해 논해주었고, 우흠은 그것을 筆記한 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문장정의》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성격이 語錄에 가깝다. 우흠은 그 成書動機에 대해 跋尾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 모두 말하기를 문장은 천하의 公器라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높은 안목과 식견을 갖춘 이후에야 능히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내가 18.9세 때에 性學先生을 따르면서 공부를 하였는데, 글을 읽으며 의리를 강구하는 틈틈마다 고급의 문장을 논하였다. 나는 자질이 노둔하여 그것을 읽어버릴까 염려되어 簡帙에다 기록해 두었다. 합쳐 보니 이백 몇십 팔 조에 이르렀는데, 이에 '性學李先生古今文章精義'라고 이름하였다. (人皆曰文章天下之公器, 然必具眼目識見高者, 而後能語其精義之精. 予十八九時, 從性學先生學, 每讀書講究義理之暇, 則論古今文章. 予資質魯鈍, 恐其遺忘, 故隨筆之於簡帙. 凡二百□八條⁵⁾, 於是表其書之首曰性學李先生古今文章精義.)

- 4) 元, 益都人, 字 思容. 「少力學有才名」하였으며 官은 兵部侍郎에 이르렀다. 저서에 地理志 성격의 《齊乘》이 있으며 四庫全書의 그 提要에서는 「敘述簡核而淹貫, 地志中之有古法者」라고 평하였다. 《新元史》권196에 傳이 있다.
- 5) 본고가 저본으로 채택한 中華書局本은 101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文淵閣四庫全書本도 중화서국본과 미량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마도 후대로 전승되면서 누락된 듯 싶다.

상기한 바에서 「每讀書講究義理之暇，則論古今文章」은 李塗가 비록 道學을 우선으로 하였지만 여타의 도학가들과는 달리 문장에 대해서도 결코 경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明證이라 하겠다.6) 그가 이상적으로 여긴 것은 학문과 문장의 겸비였으니7), 아마도 그는 학문하는 사람도 문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던 듯 싶다.8) 그럼 <문장정의>란 어떤 성격의 책인가? 四庫全書本의 그 提要에서는

그는 文을 논함에 대부분 육경을 本原으로 하였고, 성품과 장구에 힘쓰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았으며, 工拙과 繁簡의 사이 그리고 源流9)와 得失의 변별에 대해 모두 일일이 흑백을 구별하듯, 관찰하여 분별한 것을 갖추어 놓았다.10) 그가 蘇氏(소식)의 글은 縱橫을 벗어나지 못하고 程氏(정자)의 글은 혼고를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말한 것은, 공평을 유지한 의론이며, 洛蜀의 門戶를 破除한 것인데, 특히 남송인들이 기꺼이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또 세상에 전하는 「韓文如潮, 蘇文如海」,11)와 「春蠶作繭」,12)의 說은 모두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 6) 道學者들이 문장에 치중하지 않았음은 程子が 「爲文亦玩物」이라고 한 것에서 두루 유추해 볼 수 있다.
- 7) 「孟子辨百里奚一段，辭理俱到，健讀數過，使人神爽飛越。」(34條)에서 살펴 알 수 있다.
- 8) 金長生의 <沙溪全書> 4卷5張을 보면, 김장생이 제자인 宋時烈(朝鮮 肅宗朝의 성리학 大家, 1607-89)에게 이르기를 「나는 韓愈의 글을 읽지 않아 문장이 조잡하다. 道學을 공부하는 사람도 먼저 문장이 되어야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본받지 말고 한유의 글을 읽어라」고 하였던 바(본고는 許捲洙(韓愈 詩文의 韓國에서의 수용) <中國語文學> 9집, p79 참조), 李塗도 또한 이런 취지에서 義理를 강구하는 틈틈이 제자인 于欽에게 문장에 대해 말해주었던 듯 싶다.
- 9) 源流에 관한 것은 특히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참고할 만 하여 큰 것만을 택하여 아래에 열거한다.
 <莊子>者, <易>之變; <離騷>者, <詩>之變, <史記>者, <春秋>之變.(5條) 韓退之文學孟子.(12) 柳子厚文學<國語>西漢諸傳.(13) 歐陽永叔學韓退之.(14) 子瞻文學<莊子>·<戰國策>·<史記>·<楞嚴經>.(15) 曾子固文學劉向.(16)
- 10) 이외에도 고증한 것도 있는 바, 「退之(張中丞傳後序)云:『翰以文學(沈德潛 選의 <唐宋八大家古文>을 보면 '華'으로 되어 있다)自名, 爲此傳頗詳密, 然尙恨有關者, 不爲許遠立傳, 又不載雷萬春事首尾.』 「雷萬春」三字, 斷是「南霽雲」, 但俗本誤耳. 此序前半篇是說逵(上同에서는 '許')遠, 後半篇是說南霽雲, 卽不及雷萬春事, 三字誤無疑.」(40)이 그것이다.
- 11) 증화서국본에는 「韓如海, 柳如泉, 歐如潮, 蘇如海」라고 되어 있다. 文淵閣本도

있으나 그 출처가 애매하였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이 말들이 모두 이 책에 갖추어져 보인다. 《중략》 그 명언의 지극한 이치는 가히 마멸되지 않을 것이다. (其論文多原本六經, 不屑屑于聲律章句, 而于工拙繁簡之間·源流得失之辨, 皆一一如別白黑, 具有鑑裁, 其言蘇氏之文不離乎縱橫, 程氏之文不離乎訓詁, 持平之論, 破除洛蜀之門戶, 尤南宋人所不肯言, 又世傳韓文如潮, 蘇文如海, 及春蠶作繭之說, 皆習用而昧其出處, 今檢核斯語, 亦具見于是書, 《중략》 其名言至理有不可磨滅者歟.)

라고 하여, 그것의 文論과 특징·가치 등에 대해 조리있고 간결하게 말하였다. 특히 주의를 끄는 것은 南宋時 대단한 권위를 가졌던 蘇軾과 程子에 대해 기탄없이 비판한 부분인데¹³⁾, 이는 그의 文章觀이 世論에 구애 받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Ⅲ. 李塗의 文論

사고전서본의 그 재요에서는 이도의 문론을 「其論文多原本六經, 不屑屑于聲律章句」라고 지극히 간결하게 정의하였다. 본장에서는 李塗의 文論을 좀 더 博深하게 살핌으로써 그것의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1) 문장의 근본은 六經이다.

이도의 문론을 논함에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宗經論이다. 그는 후세의 모든 문장의 근원은 바로 六經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이다.

- 12) 「退之誌樊紹述, 其文似樊紹述, 誌子厚, 其文似子厚. 春蠶作繭, 見物即成性, 極巧.」(46)
- 13) 陸游의 《老學庵筆記》 권8에 「建炎以來, 尙蘇氏文章, 學者翕然從之, 而蜀士尤盛, 亦有言曰『蘇文熟, 吃羊肉, 蘇文生, 吃菜羹.』」라고 하였으니 南宋時 소식의 권위가 대단했음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정자의 학문은 주희에게 그대로 전승되었고 남송 시대 특히 후기는 도학이 맹위를 떨치던 시대이니 정자의 권위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易》·《詩》·《書》·《儀禮》·《春秋》·《論語》·《大學》
·《中庸》·《孟子》 등은 모두 도를 밝혀 세상을 다스린 성현의 글
들이다. 비록 글짓는 것을 위하여 지은 것은 아니지만 후대의 문장들
이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易·詩·書·儀禮·春秋·論語·大學·中庸
·孟子, 皆聖賢明道經世之書; 雖非爲作文設, 而千萬世文章從是出焉.)
(1)

사실 모든 류의 문장이 六經에서 나왔다는 說은 李塗에게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며,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조 시기의 顏之推와 劉勰 등에게서 찾
아 볼 수 있다.¹⁴⁾ 다만 李塗의 말에서는 四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것
의 특징인데, 이는 李塗가 四書를 대단히 중시하는 道學者의 일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李塗는 經을 여타의 文과 비유로써 비교하여 그 우
위를 말하고 있다.

經은 山林 속의 꽃이고, 史는 園圃 속의 꽃이며(《左傳》以下), 古
文 중 뛰어난 것은 巖谷 속의 꽃이고(韓愈 등등), 다음의 것은 畠分
속의 꽃이며(歐陽修 등등), 그 다음의 것은 瓶 속의 꽃이다.(經是山林
中華, 史是園圃中華(《左傳》以下), 古文高者是欄檻中華(韓之類), 次者
是盆盎中華(歐之類), 下者是瓶中華耳.)⁽⁹⁹⁾

이도의 이런 尊經觀은 물론 그가 朱憲의 再傳弟子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쉽게 살펴 알 수 있는 바이다. 사실 《문장정의》에는 그가 주희의 관
점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가 있다.

치세의 글이 있고 쇠세의 글이 있고 난세의 글이 있다. 육경은 치세
의 글이다. 《국어》같은 것은 무력하고 번잡하니 진실로 쇠세의 글이
다. 이 때의 말로써 의론한 것이 이와 같으니 주나라가 멸쳐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 마땅하다. 난세의 글은 《전국책》이 그것이다. 그러
나 英偉한 기상이 있으니 쇠세의 《국어》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有
治世世之文, 有衰世之文, 有亂世之文. 六經, 治世之文也. 如國語委靡繁

14) 안지추, 《顏氏家訓·文章篇》:「夫文章者, 原於五經: 詔令策檄, 生於書者也; 序述議論, 生於易者也; 歌詠賦頌, 生於詩者也; 祭祀哀誄, 生於禮者也; 書奏箴銘, 生於春秋者也。」

絮，眞衰世之文也。是時語言議論如此，宜乎周之不能振起也。至於亂世之文，則戰國是也。然有英偉氣，非衰世國語之文之比也。)15)

육경은 치세의 글이고 <좌전>·<국어>는 쇠세의 글이며 <전국책>은 난세의 글이다.(六經是治世之文，左傳國語是衰世之文，戰國策是亂世之文。)(38)

上記 두 인용문을 비교해 보건데, 비록 李塗의 말에 <좌전>이 하나 더 들어있지만, 그 계승관계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특히 韓愈가 柳宗元보다 나음을 논하여

<송문장사서>는 한퇴지(유)가 불교를 물리친 것이다. 유자후(중원)는 불교에 아첨을 하였으니 유중원이 한퇴지에 미치지 못한다.(送文暢師序，退之闢浮圖，子厚佞浮圖，子厚不及退之。)(42)16)

라고 하여, 그 까닭이 闢佛에 있다고 한 것은 李塗가 명백히 道學적 견지에서 立論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塗의 文章觀은 당시의 다른 道學派 위인들 처럼 편협적이지는 않다. 南宋後期 散文流派 중의 하나인 道學派의 대표적 인물인 陳德修는 그의 <文章正宗·綱目>에서 그것의 選錄基準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대저 선비가 학문을 하는 것은 이치를 궁구하여 실제로 응용하기 위함이다. 文이 비록 학문의 한 일에 불과할 뿐이지만, 요컨대 또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 편집하는 바는 의리를 밝히고 世用에 절실한 것을 위주로 하되 그 체재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그 내용이 經典에 근접된 연후에 취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문사가 공교하다 할지라도 또 채록하지 않는다.(夫士之于學，所以窮理而致用也。文雖學之一事，要亦不外乎此。故今所輯以明義理切世用爲主，其體本乎

15) <朱子語類> 권139

16) 文淵閣本에는 42條 앞에 한 條가 더 있다. 「原道送文暢師序等作，闢佛老，尊孔孟，正是韓文與六經相表裏處，非止學其聲響而已。」가 그것이다.

古, 其指近乎經者, 然後取焉, 否則, 雖辭工, 亦不錄.)

문장의 취지가 經에 접근해 있지 않다면, 文辭가 아무리 공교하다 하더라도 選하지 않겠다 하였으니, 실로 도학파의 대표적 인물다운 의론이다. 그러나 도학파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들 그 기준이 각박하다고 생각지 않았겠는가? 李塗는 비록 道學者이기는 하지만 사상적 異端이라고 하여 그 모든 것을 배척하는 그런 극단주의적 태도는 취하지 않는다. 취할 바가 있으면 오히려 받아들이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들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장자>의 <거협편>은 문사와 이치가 모두 주도면밀하다.(莊子胠篋篇, 辭理俱到.)(66)

<유마힐경>에도 작문법이 있다. 32명의 보살들은 각각 불이법문을 말하였는데 이들은 아직 불이법문을 터득하지 못한 자들이다. 유마힐은 묵묵히 있을 뿐 불이법문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진실로 불이법문을 터득한 자이다. 유자후(종원)의 <진문>이 이 체를 조금 본받았다.(維摩詰經亦有作文法, 三十二菩薩各說不二法門, 此未得不二法門者也, 維摩詰默然不說不二法門, 乃真得不二法門者也, 柳子厚晉問, 微用此體.)(69)

<노자>와 <손무자>는 한 구가 한 이치인데, 마치 여러 보석들을 사이지게 두면서도 끊어지지 않게 꿰어 놓은 것 같아서, 그 문장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老子孫武子, 一句一理, 如串八寶珍珠, 間錯而不斷, 文字極難學.)(8)

<한비자> 문장은 절묘하다.(韓非子文字絕妙.)(9)

<장자>의 <추수편>을 읽지 않는다면 견식이 끝내는 넓어지지 않을 것이다.(不讀莊子秋水篇, 見識終不安闊.)(67)

심지어는 주희가 그렇게도 배척했던 蘇軾에 대해서도¹⁷⁾ 「所謂行乎其所當行, 止乎其所不得不止,¹⁸⁾ 眞作文之大法也」라고 하여 취할 점은 취하고

있다. 19) 이런 것으로 보자면, 李塗 그 자신은 학문상으로는 도학가이지만 그의 文觀만은 도학과의 율타리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 있겠다.

2) 모방해서는 안된다.

이도의 문론에서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타인을 모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인 문장의 구조와 짜임새·음절 등은 모두 배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妙處는 배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幻師가 흙과 나무로 된 인형을 만듦에 이목구비가 사람과 흡사할지라도 그 안에는 정신과 혼백이 없어서 생동할 수가 없으니, 어찌 사람이리오! 이러하니 모름지기 글을 읽을 때에는 마음과 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타인의 좋은 점을 구하여 얻는 데에 힘을 쓰되, 일단 작문에 임해서는 오직 자기가 조종하고 오직 자기가 열고 닫아야 만이 한 줄기의 풀로 6丈에 달하는 불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니, 이런 自得에서 배우는 것들은 筆舌로 전하기가 어렵다.(古人文字, 規模間架, 聲音節奏, 皆可學; 惟妙處不可學. 譬如幻師塑土木偶, 耳目口鼻, 儼然似人, 而其中無精神魂魄(意), 而不能活潑潑地, 豈人也哉. 此須是讀書時, 一心兩眼, 痛下工夫, 務要得他好處, 則一旦臨文, 惟我操縱, 惟我裨闡, 一莖草可以化丈六金身, 此自得之學, 難以筆舌傳也.)(101)

평소엔 타인 글의 본받을 점을 열심히 학습하더라도, 일단 작문에 임해서는 自得한 바에 의거 自作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타인의 文

17) 郭紹虞의 《中國文學批評史》 p200 참조.

18) 소식의 〈答謝民師書〉에 「常行於所當行, 常止於所不可不止, 文理自然, 姿態橫生」라는 말이 있다.

19) 이와같은 「是是非非」적 태도는 여타에서도 산견되고 있다. 李斯〈上秦皇書諫逐客〉, 起句即見事實, 最妙: 中間論不出於秦而秦用之, 獨人才不出於秦而秦不用, 反覆議論, 痛快, 深得作文之法, 未易以人廢言也.(7) 특히 한유와 유종원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子厚文不如退之, 退之詩不如子厚.(81) 論史書子厚不恤天刑人禍, 退之深畏天刑人禍, 退之不及子厚.(43)

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와야 만이 좋은 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이런 선상에서 그는 또 남의 언어도 본받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문을 배울 때에는 일체 타인의 말을 배워서 는 안된다.(學文切不可學人言語.)⁽⁷²⁾

3) 達意와 修辭의 적절한 조화

그러나 이러하다 보면 자칫 글이 難遊함에 빠지기가 쉽다. 唐代的 樊宗師가 그 전형적 경우이다.

당대의 남양사람 번종사는 자가 소술이다. 그가 지은 <강수거원지기>는 난삽하기 짝이 없어 읽음에 그 구두도 왕왕 애매하니, 하물며 뜻에 있어서라! 韓文公(愈)이 말하기를 그의 글은 앞 사람의 일언 일구도 답습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 記를 보면 진실로 그러하다.(唐南陽樊宗師字紹述, 所撰絳守居園池記, 艱深奇澁, 讀之往往昧其句讀, 況義乎, 韓文公謂其文不踰襲前人一言一句, 觀此記則誠然矣.)²¹⁾

李塗는 唐代宗 時的 郇謨라는 자에 대해

唐 代宗 때에 晉州에 순모라는 자가 있어 三十字條를 올려 利害를 진술하였는데 一字가 一件事의 일이었으니, 이를테면 團字는 團練使 類를 말한 것이다. 순모 그 스스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他人들은 깨우칠 수가 없었다. 내가 생각컨데, 崎嶇하고 隱奧한 표현을 구하는 데에 힘써 족히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자들은 순모의 무리이다.唐代宗時有晉州男子郇謨者, 上三十字條陳利害, 一字是一件事, 如團字是說團練使之類, 謨自知之他人不論也, 吾謂世之作文, 務要崎嶇隱奧辭不足以達意者, 蓋郇謨之徒也.(79)

20)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것은 自得도 타인 글에 대한 학습으로 부터 오는 것인 만큼 앞 사람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1) 陶宗儀, <輟耕錄>, 본고는 陳柱의 <中國散文史> P.224에서 재인용.

라고 하여, 「務要崎嶇隱奧辭不足以達意」에 대해 혹평을 하여 達意의 문장을 쓸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達意의 문장을 쓸 수 있는가? 이에 대해 李塗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글을 배울 때는 절대로 怪句를 배우서는 안되며, 또 우선 明白正大하게 하여 실령 十句 혹은 百句일지라도 마치 一句와 같음을 구하는 데에 힘을 써서 意脈이 꿰뚫어지도록 해야 한다.(學文切不可學怪句, 且先明白正大, 務要十句百句只如一句, 貫穿意脈.)(100)

이와같이 李塗는 문장의 達意를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문장의 형식적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문장에는 모름지기 數行의 齊整한 곳이 있어야 하고, 모름지기 수행의 齊整하지 못한 곳이 있어야 한다.(文字須有數行齊整處, 須有數行不齊整處.)(55)

뜻이 짝을 이루는 곳은 文을 짝이 되게 할 필요가 없지만, 文이 짝을 이루지 못하는 곳은 뜻을 두드러지게 짝을 이루게 해야 한다.(意對處, 文却不必對, 文不對處, 意却著對.)(56)

문장의 형식적 측면을 단지 소홀히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造句 방면에 대단한 관심을 두었음을 볼 수 있겠다. 이와같았기 때문에 그는 道學 선배들의 文風을

程門의 문장은 결국은 훈고의 家風을 벗어날 수 없다.(程門文字, 到底脫不得訓詁家風.)(99)

라고 혹평한다. 程子는 作文에 대해

질문: 글을 짓는 것이 도에 해를 끼칩니까? 대답: 해가 된다. 무릇 글을 지움에 뜻을 오로지 않지 않는다면 공교해지지 않는다. 만약에 意를 오로지 한다면 志가 이것에 국한되니, 또 어찌 능히 천지와 그

름이 같아지도록 할 수 있겠는가? <書>에서 이르기를 物에 부림을 당하면 뜻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글 짓는 것도 또한 物에 부림을 당하는 것이다.(問: 作文害道否? 曰: 害也. 凡爲文不專意則不工. 若專意則志局於此. 又安能與天地同其大也? 書曰: 玩物喪志. 爲文亦玩物也.)²²⁾

라고 극언을 하였는 바²³⁾, 이로써 본다면 李滄은 문장에 있어서 만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상당히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표현형식에 치우친 글을 찬성한 것은 아니다. 그는

<文選>의 詩人들 중에서는 오직 陶淵明만의 詩, 唐의 文人들 중에서는 오직 退之만의 文이 理趣 중으로 부터 流出되어 渾然히 저절로 이루어져 인위적인 흔적이 없다. 나머자들은 자구를 단련하여 鑲刻을 工巧히 했을 따름이다.(選詩惟陶淵明, 唐文惟韓退之, 自理趣中流出, 故渾然天成, 無斧鑿痕, 餘子正是字煉句단, 鑲刻工巧而已.)⁽⁹³⁾

라고 하여, 한갓 겉만 그럴 듯 하게 꾸미는 것을 혹되게 비판하였으며, 理趣에서 흘러나와 저절로 이루어진 陶詩와 韓文을 高評한다.²⁴⁾ 그리고 소식의 <萬言書>가 가의의 <治安策>보다 못함은 논하여

자침(소식)의 <만언서>는 가의의 <치안책>을 본받은 것이다. 그러나 헛된 문식은 남음이 있고 實事는 부족하니 가의보다 훨씬 못하다.(子瞻萬言書, 是步驟賈誼治安策. 然虛文有餘, 實事不足, 去誼遠矣.)⁽³⁵⁾

22) 程顥·程頤, <二程遺書> 권18

23) 상기 인용문의 말은 문장의 관점에서 볼 때 극언이라는 것이지, 이 말 자체가 지나치다 라고 본고가 여기는 것은 아니다. 朝鮮朝의 성리학자 南溟 曹植선생도 <題德山溪亭柱>에서 「請看千石鍾/非大扣無聲/爭似頭流山/天鳴猶不鳴」라고 하여 자기도 두류산(지리산)같은 기상을 이루고 싶다는 심회를 읊은 바, 본고에서 보건데 이는 「與天地同其大」와 상통하는 것으로, 후학이라면 깊이 음미해볼만한 일이다.

24) 李滄은 文에 있어서 理趣를 중히 여기는 바, 「晦菴先生詩音節從陶韋柳中來, 而理趣過之, 所以卓乎不可及」에서도 볼 수 있다.

라고 하여, 「虛文」이 그 관건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상으로 볼때, 李塗는 作文에 있어서 타인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글을 짓되 「辭達」과 「言之無文, 行而不遠」을 적절히 조화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4) 마음을 비울 것

李塗는 성급히 혹은 억지로 立意하는 것에 대해

今人들은 作文함에 걸핏하면 主旨를 먼저 확정하여 經賦策論 등의 科場文章을 짓는 것 같이 하나, 私意에 의한 偏見으로는 천하의 道理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主旨에 막히는 바가 있으면 또 억지로 통하게 하여 글을 짓는데, 이런 것은 時文에 의한 陋習이니 경계해야만 한다.(今人作文, 動輒先立主意, 如經賦策論, 不知私意偏見, 不足以包盡天下之道理, 及主意有所不通, 則又勉強遷就, 求以自伸. 若是者, 蓋時文之陋習也, 不可不戒.) (92)

라고 하여 심히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을 지을 수 있는가? 李塗는

훌륭한 문장을 지으려면, 모름지기 흥금을 태허같이 비워야만 비로소 얻어진다. 태허같은 무슨 마음인가? 가볍고 맑은 기운이 밖에서 돌고, 그리고 산이 우뚝 솟고 물이 흐르고, 초목이 영화롭고, 금수와 곤충이 더러운 가운데에서 비약하며 노닐더라도 그 그러한 까닭을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이런 마음을 얻어 텅빔이 태허와 서로 같아지면, 일단 붓을 잡고 글을 지움에 무릇 세상의 치난·사람의 선악·일의 시비·어떤 글자를 어떻게 쓰야 합당한가·어떤 구를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합당한가·어떤 단락이 마땅히 앞에 있어야 하는가·어떤 단락이 마땅히 뒤에 있어야 하는가 등이 저울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이 자연히 드러나고 저울에서 무게를 따라 저절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같이 되어, 결코 전도됨에 이르지 않을 것이니, 비록 나아가 성현의 글에 이르는 것이라도 가능할 것이다.(做大文字, 須放胸襟如太虛始得. 太虛何心哉. 經濟之氣旋轉乎外, 而山川之流峙, 草木之榮華, 禽獸

昆蟲之飛躍游乎重濁渣滓之中，而莫覺其所以然之故。人放得此心，廓然與太虛相似，則一旦把筆爲文，凡世之治亂，人之善惡，事之是非，某字合當如何書，某句合當如何下，某段當先，某段當後，如斫醜之在鑑，如低昂之在衡，決不致顛倒錯亂，雖進而至之聖經之文，可也。(92)

라고 하여 마음을 太虛같이 비우라고 한다. 이른바 「虛室生白(마음을 비우면 저절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에 비유된다.²⁵⁾

5) 간결하게 할 것

李塗는 문장은 簡潔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禹貢>과 <周禮·職方氏>에 대해

<禹貢>은 간결하면서도 빠진 것이 없다. 山水·田土·貢賦·草木·金革·物産 등이 모두 빠짐없이 서술되어 있고, 山脈一段·水脈一段·五服一段 등은 또 조리가 있어 문란하지 않다. (<禹貢>簡而盡. 山水田土貢賦草木金革物産, 敘得皆盡. 後敘山脈一段, 水脈一段, 五服一段, 更有條而不紊.) (52)

<주례·직방씨>는 번잡하면서도 허술하다. (周禮職方氏冗而疏.) (53)

라고 논평하여, 그 우열을 명백히 했다. 이런 견해는 다음에서 더욱 드러난다.

<國語>는 <左傳>만 못하고 <左傳>은 <檀弓>만 못하니, 晉獻公과 驪姬·申生 등의 일에서 繁簡을 가히 볼 수 있다. (<國語>不如<左傳>, <左傳>不如<檀弓>. 敘晉獻公·驪姬·申生一事, 繁簡可見.) (2)

25) 朱熹는 마음을 비우고 평안히 한 다음 천천히 읽으면 몇 줄 읽지 않아도 곧 「凍解氷釋」같이 의문이 해결된다고 한 바, 이치상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孟子는 지와가 간하지 않음을 기뻐하였는데, 지와는 끝내는 諫으로써 드러났다. 韓退之는 陽城이 諫하지 않음을 기뻐하였는데, 陽城은 끝내는 諫으로써 드러났다. 歐陽永叔은 范仲淹이 간하지 않음을 기뻐하였는데, 范仲淹은 끝내는 諫으로써 드러났다. 세 일은 서로 비슷하지만, 그러나 맹자는 몇 마디의 말만을 하였을 뿐이고, 退之는 多少의 규탄하는 말을 소비하였으며, 永叔은 退之를 본받았으나 조금 미치지 못한다. 古今 문장의 우열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겠다. (孟子讎蚺繩不諫, 蚺繩卒以諫顯. 韓退之讎陽城不諫, 陽城卒以諫顯. 歐陽永叔讎范仲淹不諫, 范仲淹卒以諫顯. 三事相類, 然孟子數語而已, 退之費多少糾說, 永叔步驟退之而微不及. 古今文字優劣, 於此可見.) (19)

6) 쓸 대상에 맞게 지을 것

李塗는 또 문장은 쓰고자 하는 바에 맞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李塗는 韓愈와 柳宗원의 墓誌銘을 평하여 그 차이에 대해

退之의 墓誌는 篇篇이 不同하니 대개 쓸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지었기 때문이다. 子厚의 墓誌는 千篇一律적이다. (退之墓誌, 篇篇不同, 蓋相題而設施也. 子厚墓誌, 千篇一律.) (59)

라고 하였다. 韓愈의 묘지명은 「相題而設施」한 것이기에 이도는 이를 극찬하여

退之의 諸 墓誌銘들은 一人에 一樣이어서 絶妙하다. (退之諸墓誌, 一人一樣, 絶妙.) (44)

라고 하였다. 주희의 문장도 이치상 이와같은 것으로 여겨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문장은 쓸 바를 관찰하여 廣狹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晦庵선생 (朱憲)의 제 문장들은 마치 長江大河처럼 광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 수십만언이 동원되었어도 많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육군자찬)을 지을 때에는 사람마다 각각 단지 32자를 동원하였을 뿐이나 그 평생

을 빠짐없이 묘사해 내었는데 부족한 바도 없고 남는 바도 없으니, 이론바 쓸 바를 관찰하여 지은 것이다.(文字貴相題廣狹。晦菴先生諸文字，如長江大河，滔滔汨汨，動數十萬言而不足。及作六君子贊，人各三十二字，盡得描畫其平生，無欠無餘，所謂相題而施者也。)(91)

IV. 結論

元代の 袁桷은 <戴先生墓誌銘>에서 「남송 150여 년 동안은 이학이 흥성하여 문예가 절단되었다(後宋百五十餘年，理學興而文藝絕)」²⁶⁾라고 하였다. <문장정의>의 著者인 李塗의 문론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특별하다 할 것이 없고, 또 南宋의 性理學 집대성자인 朱熹 門人의 門人으로서 물론 道學派의 文觀을 계승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문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 道學 宗師들이나 같은 시기의 도학과 문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심히 귀에 거슬릴 수 있는 말도 많이 하였다. 이런 李塗로써 보자면, 南宋시기의 맹렬했던 道學적 산문의 추구는 이미 그 자체 내에서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李塗의 문론은 그 시대적 의의가 적지 않다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문장정의>에 실려 있는 논평들은 후세에 傳承되고 있는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지극히 簡潔하여 후인의 고전산문 연구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기에 도 충분할 것이다.

<참고문헌>

李塗 撰, <文章精義>, 四庫全書本

_____, _____, 中華書局, 1977, 香港

陳德修 編, <文章正宗>, 四庫全書本

袁桷 撰, <清容居士集>, 四庫全書本

26) <清容居士集> 권28

- 黎靖德 編, <朱子語類>「理學叢書」, 中華書局, 1983, 臺灣
- 陸游 著, <老學庵筆記>, 四庫全書本
- 沈德潛 選, <唐宋八大家古文>, 中國書店, 1992
- 陳柱 著, <中國散文史>, 上海書店, 1987, 上海
- 程顥·程頤 著, <二程遺書>, 上海古籍出版社, 1992, 上海
- 馮書耕(外一人) 著, <古文通論>, 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 1979, 대만
- 郭紹虞 著 <中國文學批評史>, 宏智書店, 홍콩
- 程千帆(外一人) 著, <兩宋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1, 上海
- 許捲洙, <韓愈 詩文의 韓國에서의 수용>, <中國語文學>9집